



(3KHZ - 30,000MHZ) 내에 잡음 (Radio Noise) 를 발생하고 있다. 이는 수백microsecond 내의 Pulse 상 현상을 가지고 있고 수백MHZ 범위에서 반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므로 Radio 잡음은 AM 주파수 대 (535-1605KHZ) 와 TV 주파수 대 (54-88MHZ) 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RI 값은 매우 불안정하며 도체표면상에 매우 민감하게 나타내고 있다. 외국에서의 개발된 RI 계산식은 표 1과 같다. (g : 전위경도, d : 소도체 직경, D: 측정거리, f: 주파수)

(3) TV 장애 (Television Interference)

기후조건에 매우 민감하게 변한다. 시제로운 외에 수많은 잡음원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TVI 추정이 어렵다. 그러나 인공의 하나는 TVI 발생 때 무조건 전파 현상이기 때문에 그 해석 및 방법이 어렵다.

G.E (General Electric.Co.) 에서는 TVI 는 RI 의 선형으로 보고 계산식을 수식화 하여 G.B.P.A (가장 장애가 큰상 (Phase) ) 으로 부러 TVI 를 보정 계산하여 수식화 하고 있다 (표 2)

(표 2)

| 개발국                  | T.V.I 계산식  |
|----------------------|--|
| G. E.<br>(U.S.A.)    | $TVI = RI - 20 \log \left( f \sqrt{\frac{1 + (R/h)^2}{1 + (15/h)^2}} \right) + 3.2$                          |
| B. P. A.<br>(U.S.A.) | $TVI = 10.0 + 120g/16.3 + 40 \log \left( \frac{d}{30.4} \right) + 20 \log \left( \frac{75.0}{f} \right) + C$ |

R : Phase로부터 거리 (m)  
h : Phase의 높이 (m)  
C : 보정 계수

(4) 가청소음 (Audible Noise)

도체표면의 전위경도가 코로나 방전개시 전압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면 가청소음은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도체표면의 오염과 차극, 표면에 부착되는 각종 식물, 꽃가루, 물방울 등의 변화로 코로나 방전개시 전압을 초과하여 국부적으로 코로나가 음향에너지로 변하므로써 가청소음 발생이 시킨다.

가청소음의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a. 특별한 특정한 계산방법: 선로의 형태와 전압이 특별한 것만 적용가능 하다.

AEP 와 Ontario Hydro 가 산출한 계산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표 3)

| 개발국                       | A. N 계산식 (특정식)  |
|---------------------------|---|
| AEP<br>(U.S.A.)           | $SL = 108 \log g + 10 \log n + 75.9 \log (d/2.54)^{1.1} - 94.5$ |
| Ontario Hydro<br>(Canada) | $SL = 100 \log g - 40 \log d - 1 \log D - 77.2$                 |

b. 일반적인 계산방법 : 여러형태의 상 배열 전압등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표 4)

| 개발국                  | A. N 계산식 (일반식)   |
|----------------------|--|
| B. P. A.<br>(U.S.A.) | $AN = 120 \log g + K \log n - 55 \log d - 11.4 \log D + AN_0$            |
| CRIEPI<br>(日本)       | $AN = -665/g - 10 \log D + AN_0$   |
| G. E.<br>(U.S.A.)    | $AN_0 = -665/g + 20 \log n + 44 \log d - 10D - 0.02D + AN_1 + K_1 + K_2$ |
| IREQ<br>(Canada)     | $AN = 72 \log g + 22.7 \log n + 45.8 \log d - 11.4 \log D - 57.6$        |

(5) 코로나 손실

송전 선로의 코로나 손실도 도체의 표면전계가 코로나 개시 경도를 초과할 때 발생하고 도체의 직경, 표면 및 대기 조건등에 의해 좌우 된다. 에너지의 손실이라는 경제적인 면에서 검토되고 있다.

Ontario Hydro (Canada), E.D.F (France), G.E (U.S.A), CRIEPI (JAPAN) 등에서 개발된 여러가지 식이 있으나 그중 일본의 CRIEPI 의 계산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P_r = \frac{0.021 r^2 N e^{0.77E}}{123.0 e^{-0.23E} + 1.0}$$

여기서 P<sub>r</sub> : 선로당 코로나 손실 (KW/Km)  
r : 소도체 직경  
N : 도체수  
E : 최대도체표면전위경도 (KV/Cm)  
R : 강우량 (mm/h)

(6) 오존의 생성

코로나 방전에 의하여 도체 주위에 오존이 발생한다. 소량이지만 10ppb 에서 냄새가 나고 9-120 ppb 에서 식물에 영향을 주고 100-300 ppb 에서 두시간 노출하면 눈이 따갑고 기침이 나며 불쾌감을 유발한다. W.H 에서 개발한 식이었다. (식.생략)

